

# 연고 없는 보길도서 전복·가리비 양식... 희생 정신 강한 '스마일 맨'



**바다에서 희망 찾는 사람들**

바다가 좋았다. 낚시는 더 좋았다. 조상현(42·사진)씨는 어릴 적부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썼다. 귀어 3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조씨는 조바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끝에 3년차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완도군 장사도에서 보길도 가는 길목 앞바다에서 전복과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다. 연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조씨는 지난해부터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 노화읍 협의회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1월 완도에 귀어했다. 동부제철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뒤로하고 귀어하는 터라 일단 홀로 완도행을 택했다. 보성 출신인 조씨는 완도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다. 귀어한지 3개월 만에 태어난 막내가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먼저 터를 잡고 가족을 데려와야 했다는 생각뿐이었다.

귀어 6개월 뒤에 조씨의 가족은 완도군 노화읍에 보금자리를 얻었다. 살뜰한 아내 신은진(39)씨와 올

## 귀어 3년차 수산업경영인 완도 노화읍협의회 사무국장 조상현씨

망졸망한 삼남매는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귀어에 '꽃길'은 없다. 알게 모르게 쉽게 뒷세도 있었다. 결혼 3년차에 선택한 귀어에 온 가족이 고군분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가 수산업경영인협회 사무국장을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현지 출신이 간부를 맡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귀어인이 지역 어업인 단체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은 파격이었다. 조씨는 사무국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그는 '스마일 맨'(Smile Man)으로 통한다. 조씨는 귀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웃과 어울려 사는 것으로 꼽는다. 그는 어촌의 인력이 부족할 탓에 자신이 일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이웃과 일을 품앗이하는데 주저 없이 동참하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는 1년에 두 번 독거노인을 찾아 세간을 수리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아내 신씨도 자연스럽게 마을 일에 동참하게 됐다.

**안정된 직장 그만두고 귀어**

**전복 캐나다 등 해외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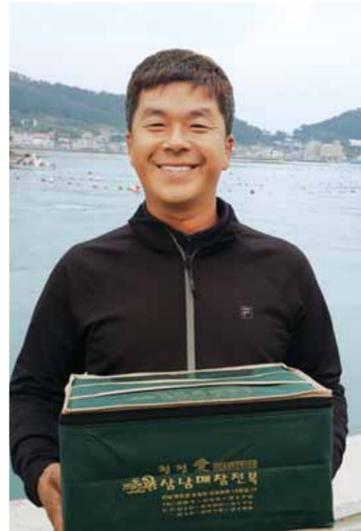
**주문 전화 하루 100건 넘어**

**시간 날때마다 아내와 함께**

**마을 일 돕고 집수리 봉사도**

조씨에게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다. 귀어 초보는 특히 게으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조씨는 해지기 전까지 쉬지 않고 전복을 돌본다. 요즘은 1년에 두 번 있는 전복 선별 작업으로 정신없이 바쁘다.

조씨의 전복은 바다 건너 캐나다, 베트남 호치민, 스웨덴 등 세계 곳곳으로 나간다. 그의 전복을 맛본



이들이 해외에서도 주문을 하는 것이다. 주문이 많을 때는 하루에 100건의 전화가 온다. 조씨는 젊은 귀어인 단체 SNS를 통해 상품을 직거래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채팅과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주문 상담이 활발하다. 하지만 고객을 대하는 자세만 큼은 '아날로그식'이다. 조씨는 전복을 고객에게 보내면서 항상 글귀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는다. 고객이 지닌 사연에 따라 "건강하시라", "이반 달도 고생 많으셨다" 등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조씨의 이런 맞춤형 응대에 감동한 고객들은 으레 단골이 되게 마련이다.

조씨는 "대규모 양식업처럼 수십억씩은 벌지 않아도 바다에서 한 해, 두 해 살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말한다. 조씨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성장했다.

조씨는 최근 목욕을 생겼다. 자본금이 마련되면 전복의 가공과 유통을 한 번에 완결할 수 있는 처리장을 세우는 것이다. 그는 "삼남매를 붙인 이름으로 어업에 뛰어들면 만큼 더 좋은 품질의 전복을 생산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싱싱한 전복 저렴하게 사서 기분 좋아요"

**전남어촌센터·대원여행사 개발**

**여행상품 구입 관광객 32명**

**해남 송호마을 방문 '만족'**

"해남 송호마을에서 전복이 나오는지는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너무 저렴하고 위생적이어서 전복을 좀 샀습니다."

부부동반으로 해남 송호마을 관광상품에 참가한 박모(65·서울)씨. 그는 처음으로 찾은 전남 어촌의 경관과 저렴한 전복 가격에 만족하며 흐뭇해했다.

지난 16일 오전 해남 송호마을에 서울, 광주 등에서 광주 대원여행사가 함께 개발한 관광상품 '슬로시티 정산도 바다여행'을 구입한 관광객 32명이 찾아왔다. (사진) 송호마을에 단체 외지 관광객이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해남 송호어촌계, 광주 대원여행사가 공동개발했으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관리대상 어촌과 전남의 아름다운 섬으로 구성됐다.

이날 관광객들은 송호마을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판매장에서 전

복을 구매했다. 또 송호해수욕장의 해변을 걸은 뒤 전복양식장을 구경했다. 이들은 송호마을을 거쳐 땅끝마을, 완도 청산도, 광주 송정역 등을 둘러봤다. 이날 관광객들은 전복판매장에서 25kg의 전복을 구매하기도 했다.

박기성 대원여행사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해남 송호마을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시민들은 질 높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물론 어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어민들을 관광객들로 인해 소득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양배 해남 송호어촌계장은 "단체 관광객의 방문으로 조용하던 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며 "한 번 송호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전복도 재주문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 송호마을은 2015년 해양수산부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돼 전복 관련 식당, 판매장 등의 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 세계로병원, 아름다운 가게와 이웃돕기 바자회 호응

세계로병원(정재훈 원장)이 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로병원은 지난 17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세계로병원·세계로메디컬타운 나눔장터'(사진)를 세계로병원 정문에서 진행했다.

세계로병원은 '세계로사랑모아봉사단'을 구성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바자회는 개원 6주년 기념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자회에는 세계로병원과 세계로메디컬타운 원장단 및 직원, 환우 가족들이 작은 공인행부 채, 옷, 신발, 테니스라켓, 가방 등 1000여점을 기부했으며, 병원 직

원 및 환우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주민의 구매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계로병원은 이번 바자회 수익금을 내년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보탬 예정이다.

정재훈 세계로병원장은 "앞으로도 '세계로사랑모아봉사단'과 함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상해식품박람회 참관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교수 21명이 최근 중국 상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개최된 상해식품박람회(FHC CHINA 2017)를 참관했다. <동신대 제공>

## 아모레퍼시픽 여성 암환자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아모레퍼시픽은 광주천대병원에서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성 암환자를 위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사진)을 실시했다.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기기 위한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일상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본 캠페인에는 2016년까지 국내에서만 총 1만994명의 여성 암 환자 및 4033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또, 2011년에는 중국, 2015년에는 베트남, 2017년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 지역을 확대해 2017년까지 10년간 총 6개국 1만4065명의 여성 암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오고 있다.

올해 국내 캠페인은 상·하반기(5~7월/10~11월)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20개 지역 병원에서 약 850여 명의 환자를, 하반기에는 전국 주요 16개 병원에서 약 700여명의 환자를 만날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박남기 교수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선출

박남기(광주교대 전 총장·사진) 교수가 지난 18일 열린 한국교원교육학회 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는 1967년에 창립돼 유·초·중등 교원교육 및 관련 정책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학회이다.

박 회장은 "2018년은 한국교원교육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학회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 교육계는 제4차 산업 시대의 교육을 이끌어갈 교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교원 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 평가, 승진제도 등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과 이론 전문가가 함께 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학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행정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 광주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고의 교수법, 교육정책론 등 10여권의 저술과 논문 100여 편을 발표했다. /윤영기자 penfoot@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박준수(무안군수 권한대행)·이옥희씨 장남 준문(영광군청)군 강대욱·김귀순씨 장녀 인아(전남도청)양=25일(토) 오후 12시 40분 광주 제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홀

▲이창성(전 서구동장)·김복희씨 장남 권철(테니스 광주·전남지사장)군 고경희(전 국회의원비서)씨 장녀 조수민양=25일(토) 오후 1시30분 사무지구 피엔제이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신인식·이박남씨 차남 영남군 고재영·유승복씨 장녀 사리양=25일(토) 낮 12시30분 광주시 서구 Y-웨딩컨벤션 2층 Y컨벤션홀.

### 동창회

▲2017 북성인 한마음송년음악회=25일(토) 오후 4시 모교강당 010-9948-4867.

▲장흥 용산초등학교 제 51회 동창회=25(토) 오후 1시 서울 사리양 14번 출구 제주북동 010-3114-8998.

▲재경 장흥 용산중학교 제 10회 동창회=25(토) 오후 6시 서울 사당역 13번 출구 정당면 010-2363-0124.

▲고흥 동강초 48회 동창회=25일(토) 낮 12시 고흥 동강초 실내체육관 010-6633-9177.

### 알림

▲광산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20일(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롯데백화점 건너편 동서여행사 2층 옆 종친회 사무실.

▲일가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는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해 무료 상담 및 교육 실시 062-526-337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솔,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광주대학교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음택,수맥,나경/입향론,비결복명당,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장. 문의 010-3609-8117.

▲청춘FC 토요축구 회원 모집=축구를 사랑하는 50~60대 모집. 토요일 오후 2시30분 광주교육대학교 갑동 010-2684-4490.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갑동 010-9092-0343.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부음

▲안상환씨 별세 김대원·화진·혜진·수진씨 모친상 박종례씨 시모상 최익준·박승필씨 빙모상=발인 20일(월) 조선대학

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임완재씨 별세 정진은(전 대학교수)·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진행(현대자동차 사장)·진철(당진에코파워 사장)·진민(정내과 원장)씨 모친상 김승권(전 대학교수)·강현석(조선일보 논설고문)·송용완(사업)씨 빙모상 박현욱·윤정민씨 시모상=발인 21일(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02-3010-2230.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201호 故김순애 님(여/88세)</b> 子 : 정재훈, 정재중, 정재웅 女/婿 : 정재민, 손재민, 재민/김진중, 재경/조광현, 재경/김민호 孫 : 정하리, 재라, 다은, 지수, 지은, 지영, 송연영 ●발 인 : 11월 21일 ●장 지 : 영락공원	<b>101호 故손수희 님(여/38세)</b> 子 : 김장진 夫婿 : 김유수 ●발 인 : 11월 21일 ●장 지 : 영락공원
<b>102호 故원주중 님(남/89세)</b> 子/子婦 : 천유택/이영주 女/婿 : 천영숙/김남식 孫 : 천대희, 숙영, 김기진, 김영진 ●발 인 : 11월 21일 ●장 지 : 영락공원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